

Mail: info@innovation-academy.de

Innovation Academy e. V. • Bertoldstraße 45 • D-79098 Freiburg

인구구조 변화 사회를 위한 혁신적 개념에 초점을 둔 전문 연수

인구구조 변화는 독일과 한국 모두에서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전체 인구의 두 명 중 한 명이 45세 이상이며, 다섯 명 중 한 명은 66세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민이 없었다면 독일의 총인구는 이미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을 것입니다.

대학도시인 프라이부르크(Freiburg)는 평균 연령 42세로 독일 내에서도 비교적 젊은 도시로 분류되지만, 이곳 역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으며, 고령화 대응은 정치와 사회 전반에서 점차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시는 노인복지국(Seniorenbüro)을 중심으로 고령기에 대한 정보 제공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자와 보행 약자의 일상적 이용을 고려한 공공 공간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 환경 조성 또한 주요 도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라이부르크의 대표적인 모델 지구인 리젤펠트(Rieselfeld)와 보봉(Vauban) 지역에서는 공동체 기반 및 세대 통합형 주거 프로젝트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한 주거 환경과 고령자의 생활 리듬과 안전을 반영한 도시 설계 방식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수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프라이부르크는 치매 환자를 위한 공동 주거를 ‘공동 책임(shared responsibility)’의 원칙 아래 운영하는 독특한 주거 모델, 이른바 **‘프라이부르크 모델(Freiburger Modell)’**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프랑스·스위스가 접경하는 삼국 국경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은 국경을 넘어선 비교와 관찰을 가능하게 하며,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세 나라의 정책과 실천 사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합니다. 아래에 제시된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연수의 주요 논의 방향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인구구조 변화 시대의 도시(고령친화도시, Age-Friendly City)
- 고령자의 고용과 사회적 참여
- 주거 및 돌봄 분야의 혁신적 접근
- 환경·건강·활동적 노화의 연계

본 기관은 인구구조 변화 사회를 위한 혁신적 개념을 주제로 한 전문 연수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과 실무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연수 운영에 대한 안내

성공적인 전문 연수를 기획하고 모든 참여자에게 의미 있고 생산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사전 소통과 체계적인 기획이 필수적입니다. 방문단의 핵심 관심사와 주요 질문은 가능한 한 조기에 명확히 전달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연구기관·현장 실천 조직과의 면담 일정은 사전 협의와 방문단 참가자 명단을 바탕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항목들은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주요 프로그램 요소들입니다.



사진: Innovation Academy e.V.

주요 연수 프로그램 구성

도입 강연

독일 및 중부 유럽의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강연으로, 연령 구조, 사회적 참여, 노동시장, 돌봄 및 서비스 제공 체계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특히 한국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국제적 관점을 강화하며, 고령사회가 직면한 핵심 과제와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후 현장 방문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라이부르크 구시가지 현장 답사 (고령친화적 도시 환경에 초점을 둔 가이드 투어)

프라이부르크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현장 답사로, 고령자와 보행 약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도시 환경, 보행 동선,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고령자의 사회적 참여를 역사적 도시 맥락 속에서 살펴봅니다. 아울러 현재 직면한 과제와 향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합니다.

프라이부르크 시 사회국 노인복지부(Seniorenbüro)와의 강연 및 교류

프라이부르크 시의 지방정부 차원의 노인 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과 대화의 시간입니다.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과 서비스, 고령친화적 도시 개발 전략을 소개하며, 행정 실무 현장에서의 최근 과제와 대응 경험을 함께 공유합니다.

시민사회 발전센터(zze: Zentrum für zivilgesellschaftliche Entwicklung)

프라이부르크 북음주의 대학에 소속된 연구·전환 센터로, 인구구조 변화와 시민사회를 주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교류에서는 변화하는 노년의 삶의 방식, 시민 자원봉사, 고령자의 역량과 경험을 반영한 노동 및 사회참여 모델에 대한 연구와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리젤펠트 지구 방문

(고령친화적 도시 설계에 초점)

1990년대부터 가족 친화적 주거지로 계획된 리젤펠트는 현재 약 1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밀도 높은 사회적 인프라와 일상생활에서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주거 설계를 결합한 사례입니다. 현장 답사에서는 사회 인프라, 근린 생활권, 생활권 내 이동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도시 밀도와 보행·자전거 중심 정책이 고령자의 안전과 휴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합니다.



사진: AWO Freiburg / Bike Bridge e.V. / Baden TV Süd

시민 이니셔티브 「ÄwIR – 리젤펠트에서의 노년」과의 교류

지역 기반 시민 이니셔티브와의 교류를 통해 고령자의 자발적 조직화, 이웃 간 상호 지원, 고령사회에서 자원봉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봅니다.

바이잉가르텐 지구 다세대 교류 공간(EBW)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사회적 과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바이잉가르텐 지구에 위치한 다세대 교류 공간을 방문합니다. 이곳에서는 연령과 신체 조건에 관계없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참여 구조와 이러한 방식이 노년기 사회적 관계 형성에 갖는 의미를 소개합니다.

고층 주거단지 「Buggi 2」 방문 및 '주거 가족(Wohnverwandtschaften)' 프로젝트 교류

도시형 공동체 주거 프로젝트 'Buggi 2'를 방문하여, 공동체 주거와 상호 지원,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중심으로 한 주거 모델을 살펴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전거를(Radeln ohne Alter)」 프로젝트 교류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는 리크샤를 통해 고령자와 외출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역 내 이동과 외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시민 참여, 건강 증진, 공공 공간 활용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다룹니다.

보봉(Vauban) 지구 방문

(고령친화적 도시계획에 초점)

국제적으로 지속가능 도시 개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보봉 지구를 방문합니다. 생태적 도시계획과 자동차 이용을 최소화한 교통 정책, 공공 공간 설계가 고령자의 일상생활과 외부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활동 중심 도시 구조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논의합니다.

치매 공동주거 Woge 및 세대 통합 주거 프로젝트 Arche 방문

치매 공동주거 Woge는 소규모 주거 형태, 일상 중심 돌봄, 높은 수준의 자기결정권,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존엄한 돌봄을 실현하는 사례입니다. 같은 건물에 위치한 세대 통합형 주거 프로젝트 Arche는 연대와 공동체, 자발적 상호 지원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포용적 주거 프로젝트 방문 및 기획자와의 교류

보봉 지구의 공동체 주거 프로젝트 'Vaubanaise'를 방문하여, 연령과 지원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 주거 모델을 살펴봅니다.

포용성을 중심에 둔 호텔 방문

Green City Hotel Vauban은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포용적 고용 개념을 결합한 사례로, 고령자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이용하기 쉽도록 설계된 공간과 운영 방식을 통해 사회적 포용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어떻게 함께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프라이부르크 모델」 협회와의 교류

프라이부르크 모델은 돌봄, 간병, 상담, 이웃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고령자 지원 체계로, 지원 필요가 증가하더라도 익숙한 주거 환경에서 자립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진: AWO Freiburg / SWR

혁신적 요양시설 방문

최근 프라이부르크에서는 고령화와 현대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요양시설이 다수 조성되었습니다. 이들 시설은 주거성, 일상생활에서의 동선과 이용 편의를 고려한 공간 구조, 유연한 공간 구성과 돌봄 기능을 결합하여, 고령자의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북서부 지역 방문

프라이부르크가 위치한 독일 남서부 지역은 프랑스와 스위스와 인접해 있어, 국경을 넘어선 비교와 관찰이 용이한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서로 다른 국가의 정책적 접근과 제도 운영 방식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젤-슈타트 주 「함께, 그리고 잘 나이 들어가기」

바젤-슈타트 주 정부 관계자와의 교류를 통해, 주 차원에서 수립한 고령사회 대응 비전 **함께, 그리고 잘 나이 들어가기**를 살펴봅니다. 이 교류에서는 주거, 건강, 사회적 참여, 세대 간 연대를 아우르는 정책 방향과 함께, 부처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고령사회 정책 거버넌스 구조를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고려한 통합적 정책 설계와 행정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취리히 방문 및 「취리히의 노년(Zürich im Alter)」 담당 부서와의 교류

취리히 시의 고령화 정책 전담 부서인 「취리히의 노년」과의 교류를 통해, 도시 차원에서 고령자의 삶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구조를 살펴봅니다. 이 자리에서는 통합 상담 서비스 운영 방식, 지역 내에서 가능한 한 오래 살아가기(Ageing in Place) 개념, 도시 행정의 조정 역할, 그리고 주거·건강·일상생활 지원·사회적 참여를 연계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합니다.

장크트갈렌 방문 및 「스위스 고령화 학제간 네트워크(AGE-INT)」와의 교류

AGE-INT는 스위스 최대 규모의 고령사회 연구 프로젝트로, 학제 간 연구진이 실천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의 도전과 기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 고령자의 삶을 지원하는 기술과 디지털 솔루션
- 치매의 예방과 돌봄 체계
- 은퇴 이후의 경제 활동과 사회적 역할
- 사회적 포용과 참여 확대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분야에서 국내외의 연구 성과와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 결정자와 실무자, 시민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랑스 알자스(Alsace) 지역 방문

스트라스부르 방문 및 시 행정 관계자와의 전문 교류

스트라스부르는 2013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참여해 온 도시로, 프랑스 내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고령친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방문에서는 스트라스부르 시 행정 관계자와의 전문 교류를 통해,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전략을 살펴봅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이용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중교통 체계, 고령자의 생활을 고려한 주거 및 보건 서비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 기반 프로그램 등입니다. 또한 보건·사회 서비스, 대학, 시민사회 단체, 고령자 당사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부처 간 협업 구조를 중심으로 공유합니다.